

# VC 상장에 유진저축銀 인수까지 사업 확장 KTB證, 주가 160% ↑

유진저축銀 지분 51% 취득 결정  
경영권 확보로 주력 계열사 추진  
KTB네트워크 연내 코스닥 상장  
연이은 호재로 올 주가 160% ↑

KTB그룹이 사업 확장에 나섰다. 주요 계열사인 1세대 벤처캐피탈(VC) KTB네트워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고, 유진저축은행을 인수한다.

KTB투자증권은 현재 KTB자산운용, KTB네트워크, KTB프라이빗에쿼티, KTB신용정보, KTB증권태국(ST) 등 KTB그룹 주요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유진저축은행 지분 51%를 확보해 최근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지난 4월 KTB투자증권은 이사회를 통해 유진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30%를 취득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유진에스비홀딩스는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후 진행된 실사 과정에서 유진저축은행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고 추가 지분 획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B투자증권은 지난 6일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90.1%를 취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과 출자승인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된다.

취득할 지분은 유진제4호헤라클레스사모펀드(PEF)가 보유한 지분 전부(86.08%)와 유진기업이 보유한 지분(4.02%) 중 일부다. 이 중 KTB투자증권이 취득할 지분은 51%로 취득금액



서울 여의도 KTB투자증권 본사. /KTB투자증권

은 2003억원이다. 나머지 39.1%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가 매수한다.

유진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규모 2조9842억원으로 업계 7위권 대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순이익은 519억원으로 업계 5위를 기록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진저축은행 실사 결과 인수 가치가 높은 우수한 회사로 확인됐다”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통해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저축은행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은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게 KTB투자증권 측의 설명이다. 지난 6월 KTB네트워크가 상장 전 자금 유치(프

리IPO) 과정을 통해 1540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57억 원에 달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한편 KTB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 증시 상황이 나빠지면서 상장을 철회했고, 2년 만에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원을 늘릴 계획이다.

KTB네트워크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투자한 초기 투자자인 1세대 벤처캐피탈(VC)이다. 지난 3월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매각해 625억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투자원금 23억원과 비교했을 때 26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KTB네트워크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원은 유니콘 기업 발굴 및 투자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며 “신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투자 서비스로 벤처캐피탈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이은 KTB투자증권의 호재에 주가도 덩달아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지난 12일 2.18% 상승한 8430원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만 160%나 급등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올해 기관은 KTB투자증권 주식 4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440억원, 개인은 5억원을 순매도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脫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동참  
한국투자증권은 정일문 사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한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일문 사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ESG 투자 늘리고’라는 약속을 제안하며 “고객과 환경을 위해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증권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 “AR 기반 메타버스 시장 체인저 될 것”

### IPO 간담회

#### 맥스트

디지털뉴딜 프로젝트 주관사 선정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최초 상장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맥스트가 기술상장특례로 7월 말 코스닥 상장을 예고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는 최초다.

박재완 맥스트 대표이사는 1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맥스트는 단순 소프트웨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AR·VR 전체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스트는 2010년 설립한 후 증강현실(AR)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데 집중해 온 기술 전문 기업이다. 현재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인 ‘MAXST AR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50개국 1만2000개 개발사에 유·무료 버전으로 배포 중이다. 고객이 맥스트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면 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다.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과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R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와는 작년 부터 미래기술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축형 AR 솔루션은 구축비를 받은 후에도 산업 특성에 맞는 라이선스 비용을 받

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작년부터는 중소기업용 AR 솔루션인 ‘맥스워크(MAXWORK)’를 출시해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팩토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구축형 AR 솔루션 사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맥스트는 솔루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익을 내면서 내후년까지 안정적으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맥스트는 AR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맥스트는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자사 VPS 기술의 경우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쉽게 맵을 제작하고, 데이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VPS는 3차원 맵을 만들고, 영상 인식을 통해 3차원 위치와 자세를 계산하는 기술이다.

맥스트는 지난 5월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인 ‘XR(확장현실) 메타버스 프로젝트’ 주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과기부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창덕궁 등을 중심으로 한 ‘XR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맥스트의 총 공모주식수는 100만주이며, 공모 희망가 밴드는 1만1000원~1만3000원이다. 12~13일 양일간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이달 16일과 19일에 청약의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이며, 총 공모금액은 110억~130억원이다. /양유경 기자 noon@

##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본격 분양

현대엔지니어링 견본주택 개관  
전용 64~84㎡, 총 166실 구성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9일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13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오피스텔 전용 면적 64~84㎡ 총 166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4㎡A 24실 ▲64㎡B 23실 ▲84㎡A 71실 ▲84㎡B 48실 등 주거형으로 구성된다.

교통편은 반경 약 1.5km 거리에 SRT 동탄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를 통해 SRT 수서역까지 약 17분에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교통호재도 갖췄다. 기존 SRT 동탄역에 파주 운정~삼성~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GTX-A노선 이용 시 서울 삼성역까지 약 22분대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보 거리에 동탄 도시철도 트램도 오는 2027년 개통될 계획이다. 경기도청 자료를 보면 동탄 도시철도는 수원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분당선 망포역, 1호선 오산역, 병점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오산~봉담) 등이 가까워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핵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GTX-A노선

(예정), 트램(계획), 분당선 연장(계획)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라며 “선호도 높은 힐스테이트 브랜드와 아파트 대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거형 오피스텔 상품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주거형 오피스텔은 14일~15일 2일간 청약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9일, 정당 계약은 21~22일 진행된다.

/정연우기자 yw964@

## LH, 中 12개사 스마트 공장 지원

정부예산 7억2000만원 투입  
이달 15일까지 12개사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정부 예산 등 총 7억2000만원이 투입된 중소기업 12개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은 올해 2회째로 LH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컨소시엄을 운영해 사업을 진행한다.

스마트공장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서류 신청 접수는 이달 15일까지다. LH는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8월 중 협업기관과 협약체결, 자금출연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신자재 분야에서 LH 인증 신기술 공모에 선정된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다. 과거 정부 등으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혁 수습기자 wonster@